

제5절 문서로 보는 삶의 모습

1. 류현휴(柳玄休)의 『고성종유록(高城從遊錄)』

1795년 류범휴(柳範休)[1744~1823]가 고성군수에 제수되어 부임한 시기에 그의 아우 중 하나가 그를 방문한 내용을 기록한 일기이다. 금강산 유람이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18세기 후반의 울진을 볼 수 있는 기록이다.

류현휴(柳玄休)[1752~1822]는 자(字)는 귀서(龜瑞)이고, 호는 우안(愚安)이다. 안동 출신이다. 형 류범휴와 함께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문하에서 수학했다.

일기의 표제는 『가세잡기』로 되어 있다. 『가세잡기』는 안동 수곡리 대평 출신인 호곡(壺谷) 류범휴에게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기록한 일기이다. 시간 순서에 따라 6개 일기로 구성되었다. 6개 일기의 기록 시기는 대략 1800년 전후이다. 류현휴의 일기는 『가세잡기(家世雜記)』에 두 번째로 수록되었다.

『고성종유록』은 1795년 류범휴가 고성군수에 제수되어 부임한 시기에 그의 아우 중 하나가 작성했다. 10월 11일부터 그해 연말인 12월 31일까지 기록하였다. 총 23면인 이 자료는 1면당 15-18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초서로 필사되어 있다.

류범휴가 1795년 7월 2일 고성군수에 제수되어 9일 고성에 부임하는데, 안동 수곡리 대평(大坪) 본가에서 류범휴의 아우가 형수와 조카며느리를 데리고 고성 관아로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조카, 즉 류노문(柳魯文)[1777~1813]과 류정문(柳鼎文)[1782~1839] 그리고 박광복(朴光復)이 따르고 있다. 당시 조카들은 각각 19세, 14세였다.

이들의 행로는 동해안 길을 택한 것과는 달리, 영주·풍기·단양·원주·횡성·홍천·인제·고성에 이르는 길이다. 아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 명소를 들러 유람한 기록도 보인다. 10월 24일 고성 관아에 도착하는 것으로 고성으로 가는 여정 기록은 끝이 난다. 이후 25일부터는 일대의 명승지와 금강산, 그리고 동해를 오가며 유람하는 기록들이 이어진다. 특히 유점사(楡岾寺), 장안사(長安寺), 표훈사(表訓寺)의 유람 기록들은 매우 상세하다. 12월 20일 ‘아병(兒病)’이 걱정되어 형님(류범휴)과 이별하고 귀로에 오른다. 형수와 조카는 고성에 남았다. 일행의 귀로는 동해안을 따라 영덕으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한다. 간성·양양·강릉·삼척·울진·평해의 명승들을 둘러보며 12월 31일(67-68면) 영덕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80여 일간의 여정을 결속하게 된다.

일기는 경상도 지식인의 유람기이며, 18세기 후반 경상도 북부 지역과 금강산 일대의 풍경을 짐작할 수 있다. 울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향후 울진과 경상도 북부 해안지역을 연구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2. 안병斗(安炳斗)의 『남유록(南遊錄)』

안병斗(安炳斗)[1881~1927]는 울진 사람이다. 안병斗가 1905년에 황중광(黃重光)·황시응(黃時應)과 함께 울진을 떠나 영덕, 경주, 울산을 거쳐 부산 동래를 유람하는 과정을 기록한 기행일기이다.

안병斗의 자는 극중(極中), 호는 동은(東隱),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울진(蔚珍)에 살았다. 부친은 달원(達源), 모친은 안동 권씨로 권영진(權永鎮)의 딸이다. 회당(晦堂) 장석영(張錫英) 문하에서 수학했다. 저서로 『동은유고』가 있다. 일기는 안병斗의 문집 『동은유고(東隱遺稿)』에 실려 있다. 모두 13면이고, 1면은 11행 23자로 구성되었다. 1905년 9월 9일(중양절)부터 9월 27일까지 기록하였다.

안병斗 일행은 동남쪽 지방을 유람하면서 산천의 풍경, 지인들과의 만남, 날씨의 변화, 명승지의 모습, 지방의 풍습, 변화한 도회지의 모습, 그리고 양동의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선생의 고택을 방문하고 느낀 감정, 경주 일대의 신라 고적을 답사하면서 느낀 흥망성쇠에 대한 감회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시문으로 기록했다. 특히 부산 동래와 부산포에서 외국인들이 해괴한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며 위협을 가하는 모습과 서양 각국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 아름다운 조선 강토를 잠식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조선 말기 풍전등화 앞에 놓인 조선의 처지와 이에 따른 당대 지식인들의 비애를 느낄 수 있다.

안병斗 일행의 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울진→영해 원구→영덕 복구암→오포→포항 보경사→용주폭포→경주 양동→봉황대→첨성대→반월성→양산 통도사→부산 동래읍→부산포→초령→울산 평산리→신경리→신기→경주 남산→영일읍→홍해 부용정→영덕 장포→영해 원구→집 도착하였다.

『남유록』은 조선 말기 개항 이후 달라진 부산의 모습과 격변하던 시기 내륙에서 온 여행객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 조선이 국권을 상실하기 전 부산 동래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특히 이 시기 울진의 지식인들이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지역에 대한 감흥을 기록한 것으로 매우 희소한 기록이다. 20세기 초반 울진 지식인의 정신세계와 그들의 가치, 학문적 성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울진 대풍헌 소장 문서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대풍헌에 걸려 있는 조선 후기 현판 12점이다. 울진 대풍헌 현판 일괄은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하던 수토사들이 그곳을 가기 위해 머물렀던 곳인 대풍헌의 정면과 내부 마루에 걸린 현판 중 1910년 이전에 만들어진 12점의 현판을 말한

다. 2012년 5월 14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41호로 지정되었다. 현판 목록은 「기성구산동사(箕城龜山洞舍)」 1점, 「대풍헌(待風軒)」 1점, 「구산동사 중수기(邱山洞舍重修記)」 1점 (1851), 「영세불망지판(永世不忘之板)」 6점(1870~1878), 「구산동사기(邱山洞舍記)」 1점 (1888), 「동계 완문(洞稷完文)」 1점(1904), 「중수기(重修記)」 1점(1906)이다.

「기성구산동사」와 「대풍헌」 현판은 1851년(철종 2) 대풍헌을 중수하면서 건물 밖에 내 걸었던 현판으로 건물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구산동사 중수기」 현판에는 권성도(權成度) 외 네 명의 인물이 수토 임무를 봉행하기 위해 10여 칸을 중수하고 '대풍헌'이라 이름하여 현판을 걸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현판의 제작 시기는 1851년 6월이다.

「영세불망지판」은 모두 6점이 있는데, 파견된 수토사들이 구산동에 머물 때 마을 사람들에게 폐해가 있자, 마을에 물자를 지원해 주거나 마을 사람들을 위로해 준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세부 목록을 보면, 「평해 군수 심능무 이윤흡 영세불망지판(平海郡守沈能武李允翕永世不忘之板)」(1870), 「월송 만호 장원익 영세불망지판(越松萬戶張源翼永世不忘之板)」(1870), 「평해 군수 이용익 영세불망지판(平海郡守李容益永世不忘之板)」(1871), 「월송 영장 황공 영세불망지판(越松營將黃公永世不忘之板)」(1869), 「전임 손주형 손말백 손익창 영세불망지판(銓任孫周衡孫沫栢孫益彰永世不忘之板)」(1878), 「도감 박억이 영세불망지판(都監朴億伊永世不忘之板)」(1878)이다. 「중수기」 현판은 1906년(고종 43) 대풍헌 중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계 완문」은 1904년(고종 41) 구산 동계를 인정해 줄 것을 관에 요청하는 내용과 그 청원에 의해 관에서 발급해 준 내용을 함께 새긴 것이다.

울진 대풍헌 현판 일괄은 조선 정부가 19세기에도 여전히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및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4. 울진 장씨 고산성파 소장 고문서

2007년 1월 8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5호로 지정되었다. 울진 장씨(蔚珍張氏) 고산성파(古山城派)에서 소장하는 122점의 고문서이다. 교지, 망기, 명문, 서목, 시권, 완문, 입안, 전령, 첨문, 호구단자, 양안, 입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 대부분 15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것들로 한 가문의 역사는 물론이고 당대의 사회상과 경제적 동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중 장동범(張東範)이 40대에서 60대까지 3년마다 가족 사항을 적어 관아에 제출한 호구단자(戶口單子)는 당시 시골 양반가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현재 이들 자료는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대표적인 자료는 장백손이 1487년(성종 18) 무과(武科)에 합격하고 받은 교지와 호적 단자가 있다.

5. 이호발(李鎬發) 일기

1924년 이호발(李鎬發, 1897~1930)이 친구 박종문(朴鐘文), 백명언(白明彦) 등과 함께 금강산을 돌아보고 쓴 필사본 일기이다. 이호발은 자가 무팔(武八)이고 호는 보은(寶隱)이다. 본관은 재령이다. 1897년 경북 영해 오촌리(梧村里)에서 출생했다. 이수정(李壽禎, 1855~1932)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의 10세손이다. 1930년에 3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본 일기는 필자가 28세에 기록했다.

표지와 내지를 포함하여 모두 54면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표지에 ‘금강탐승지(金剛探勝誌)’라는 제목과 ‘갑자사월일(甲子四月日)’이라는 날짜가 쓰여 있다. 뒤표지에는 ‘사천이 백오십칠년 갑자사월초칠일기(四千二百五十七年 甲子四月初七日起)’라고 적혀 있다. 서기 년으로 환산하면 갑자년은 1924년이다. 각 면은 8~12행으로(대체로 11~12행이 주를 이룸) 23자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글씨는 행초서이다. 날짜 아래에 일간지와 날씨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매일 이동한 거리를 기사의 마지막에 기록했다는 점이다. 1924년(갑자) 4월 초7일부터 다음달 5월 12일까지 총 36일 동안 기록했다.

필자가 살았던 경북 영해 오촌[현 경북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을 출발하여 울진, 삼척, 강릉 등 동해의 관동팔경을 두루 살피고 내외금강산을 유람하고 5월 2일부터는 강원도를 떠나 서울, 대전, 상주, 안동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았다. 하루 평균 60~70리 정도를 도보로 이동했다. 46면 마지막 기사에 이어서 50면까지는 경유한 유람지에서 지은 시를 필사해 두었는데, 필자 자신의 것이 대부분이고 박종문의 시가 세 편이다.

이 기록은 여정이 가장 긴 유람기 중의 하나로, 많은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내용상 3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단락은 4월 7일 경북 영덕군 창수면 수리 유어동을 지나 친인척과 지인들을 찾아보며 북상하는 여정으로, 4월 12일 기록인 울진군 원남면(遠南面)[현 매화면] 매화리(梅花里)까지이다. 이 단락은 본격적인 금강 유람이 아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동한 거리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지는 않다.

두 번째 단락은 본격적인 유람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 여정을 따라가 보면, 연호정(蓮湖亭), 구마리(九麻里), 흥부(興富) 시장[13일] ; 갈령(葛嶺), 평해 온정리, 용화동(龍化洞), 대홍동(大興洞)[14일] ; 맹방리(孟方里), 죽서루(竹西樓), 북삼면(北三面) 단봉리(丹鳳里)[15일] ; 송정리(松亭里), 망상면(望祥面) 발한리(發翰里), 옥계면(玉溪面) 도직리(道直里), 율현(栗峴), 화비령(花飛嶺)[16일] ; 강릉 대정정(大正町), 정동면(丁洞面), 경포대(鏡浦臺), 해운정(海雲亭)[17일] ; 해운정(海雲亭), 사천(沙川), 주문진(注文津), 양양(襄陽) 조산리(造山里)[18일] ; 낙산사(洛山寺), 흥련암, 대포진(大浦津), 도천면(道川面) 주교리(舟橋里), 영랑호(永朗湖), 청간정(淸澗亭), 죽왕면(竹旺面) 오호리(五湖里)[19일] ; 간성(杆城)[20일] ; 금강산 건봉사(乾鳳寺), 불이문(不二門), 보림암(普琳庵), 봉암암(鳳岩庵), 오대면(梧垈面), 화진포(花

津浦), 대진촌(大津村), 현내면(縣內面)[21일] ; 송도진(松島津), 현종암(懸鐘巖), 고성읍(高城邑), 입석진(立石津), 만물상(萬物像), 봉수진(烽燧津)[22일] ; 삼일포(三日浦), 석부도(石阜島), 삼려리(三閭里), 온정리(溫井里), 삼가리(三街里)[23일] ; 만물초(萬物肖), 석문동(石門洞), 감로수(甘露水), 극락현(極樂峴), 신계사(神溪寺), 보광암(普光庵), 산영지(山映池)[24일] ; 오선대(五仙臺), 앙지대(仰止臺), 천화대(天花台), 옥류동(玉流洞), 구룡연(九龍淵), 고성군 보현리(普玄里)[25일] ; 구숙령(狗宿嶺), 유점사(榆岾寺), 오탁천(烏啄泉), 은선대(隱仙臺), 유점사[26일] ; 칠보대(七寶臺), 내무령(內霧嶺), 묘길상(妙吉祥), 마하연(摩訶衍), 만회암(萬灰庵), 백운대(白雲臺), 마하연암, 사자암(獅子巖), 팔담(八潭), 보덕굴(普德窟), 만폭동(萬瀑洞), 표훈사(表訓寺)[27일] ; 정양사(正陽寺), 혈성루(歇惺樓), 장안사(長安寺), 말휘시(末輝市), 사동면(泗東面) 신읍리(新邑里)[28일]까지의 여정이다. 내금강에서 외금강 경로를 따라 탐방하고 있다. 15일간 990리를 이동했는데, 자동차를 탄 것은 70리에 불과하다.

세 번째 단락은 금화에서 서울, 대전, 상주, 예천, 하회, 임하, 영양까지의 기록이다. 그 여정을 따라가 보면, 금화(金化), 창도리(昌道里)[29일] ; 탑구리(塔矩里), 근북면(近北面) 성암리(城岩里), 평강읍(平康邑)[5월 1일] ; 동대문 청량리, 광화문 근정전, 남대문, 북미창정(北米倉町-북창동)[2일] ; 남산, 남대문, 용산(龍山), 대전[3일] ; 가수원역(佳水院驛), 신안(新安) 복룡리(伏龍里)[4일] ; 복용리[5일] ; 대전, 추풍령, 영동과 상주 경계 능치동(能治洞), 공성(功城)[6일] ; 상주읍, 예천, 수산리(水山里), 다인진(多仁津), 용궁(龍宮), 지보면(知保面) 도화리(道化里)[7일] ; 대죽리(大竹里), 하회(河回)[8일] ; 류성룡이 소요했던 옥연정(玉蓮亭), 병산, 송야촌(松夜村)[9일] ; 천전(川前)[10일] ; 임하(臨河), 망천(輞川)[11일] ; 마령(馬嶺), 기리(沂里)[12일]까지의 여정이다. 이 단락에서는 친인척과 지인들을 방문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13일간 모두 1,365리를 이동했다.

이 일기는 20세기 초반 경상도 지식인의 눈으로 본 경상도 여러 지역의 실상을 담고 있다. 특히 경상도 북부의 해안 지역과 울진, 평해 등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은 이 지역을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장백손 교지(張伯孫教旨)

조선 전기의 무신 장백손이 관직을 거치면서 받은 교지 31점이 있다. 2007년 1월 8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6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전기의 무신 장백손(張伯孫)이 관직에 제수될 때 받은 31점의 교지이다.

장백손은 본관이 울진(蔚珍)이다. 할아버지는 장천말(張天末)이다. 장천말은 조선 건국 직후 고려 공양왕(恭讓王)의 왕자인 왕석(王奭)을 옹립하여 왕씨의 복위를 도모했다가 실패하였다. 장백손은 1471년(성종 2)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487년(성종 18) 무과에 급제하여

내금위에 제수되었으며, 수문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490년(성종 21) 갑산진(甲山鎮) 병마만호(兵馬萬戶)를 지냈으며, 1491년(성종 22)에는 여진족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다. 1503년(연산군 9) 태안 군수를 비롯해 1504년(연산군 10)에 강계 부사가 되었다가 중종 대에는 순천 부사, 원주 부사, 경흥 부사를 지냈다. 1523년(중종 18)에는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오 위도총부경력(行五衛都摠府經歷)에 제수되었고, 1531년(중종 26)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만호에 재직하던 시기인 1491년(성종 22) 우디거[兀狄哈] 여진족이 변방을 침략하여 조산보(造山堡)를 점령하였다. 이때 평안도관찰사 허종(許琮)을 도와 이들을 정벌하는데 공을 세웠다. 1528년(중종 23)에는 당시 울진 읍치가 있던 고산성(古山城)이 기울고 물이 없어 적을 막기 어렵다고 하여 읍치를 고현성(古縣城)으로 옮기자는 상소를 제출하였다. 1967년 후손 장현규 등이 중심이 되어 세운 경흥부사장백손유허비(慶興府使張伯孫遺墟碑)가 현재의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 2리 매정동에 위치해 있다. 장백손의 무과 홍패 등은 2007년 1월 8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96호로 지정되었다.

교지는 1490년(성종 21) 선략장군행충무위우도부사직(宣略將軍行忠武衛右都副司直)에 임명되었을 때 받은 것부터 1523년(중종 18) 마지막 관직인 어모장군행오위도총부경력(禦侮將軍行五衛都摠府經歷)에 임명될 때 받은 것까지 다양한 직책에 걸쳐 있다. 형태는 모두 직사각형이며 재질은 한지이다. 현재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33번지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다.

7. 장양수 홍패(張良守紅牌)

1205년(희종 원)에 진사시(進士試) 병과에 급제한 장양수에게 내린 급제첩(及第牒)[공식 명칭 장양수 홍패]이다. 1975년 10월 13일 국보 제181호로 지정되었다. 필사본으로 수량은 1축이고 크기는 가로 88cm, 세로 44.3cm이다.

장양수는 본관은 울진(蔚珍)이고, 울진부원군 장말익(張末翼)의 8세손이다. 증조할아버지는 영동정판문하성사(令同正判門下省事) 장영의(張令宜)이고, 할아버지는 직장(直長)을 지냈다. 아버지는 동정(同正) 장한련(張漢連)이며, 어머니는 울진 임씨로 임유무(林惟茂)의 딸이다. 1205년(희종 원) 진사시 병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전리판서(典理判書)를 거쳐 상호군(上護軍)에 이르렀다. 남송 영종 때 사신으로 가서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많은 공적을 남겼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내린 홍패(紅牌), 백패(白牌)와 같은 성격의 교지이다. 앞부분이 없어져 완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양식으로 보아 조선시대의 홍패, 백패와는 서식 상에서 차이가 있다. 누런색 마지(麻紙) 두루마리에 행서(行書)와 초서(草書)로 글

씨를 썼다. 내용 가운데에는 고시(考試)에 참여했던 사람의 관직(官職)과 성(姓)도 열기되어 있다. 형식은 송(宋)나라의 것을 받아들인 듯하며, 고려 과거제도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8. 조선시대의 민원서류 및 처리 공문서⁸³⁷

조선시대 울진 지역 관련 민원서류 및 처리 공문서에는 「열녀(烈女) 삼척 김씨(三陟金氏) 예조입안문(禮曹立案文)」[1648], 「효자(孝子) 승지공(承旨公) 황숙(黃塾) 유장(儒狀) 정포문(旌褒文)」[1706], 「효자공(孝子公) 휘(諱) 동유(東維) 예조입안문(禮曹立案文)」[1869], 「황씨 종중(宗中)에서 수령에게 보낸 민원서류」[1884], 「수령이 순찰사에게 진달(進達)한 공문서」[1884], 수령으로부터 회시(回示)받은 공문서」[1884], 「순찰사의 중간 회시 공문서」[1884], 「종중대표(宗中代表)가 순찰사(巡察使)에게 보낸 민원서류」[1885], 「순찰사로부터 받은 완문(完文)」[1885] 등이 있다.

「열녀 삼척 김씨 예조입안문」, 「효자 승지공 황숙 유장 정포문」[1706], 「효자공 휘 동유 예조입안문」은 모두 효자·열녀에 처리에 관한 공문서이다. 1884년·1885년에 만들어진 문서는 황씨대종회에서 발견하였다. 1884년(고종 21) 윤(閏) 5월에 황씨(黃氏) 종중(宗中) 대표 33인이 지방 수령(守令)에게 건의한 민원서류와 1885년(고종 22) 7월에 순찰사(巡察使)에게 건의한 민원서류 및 이에 대한 수령의 회시문, 수령이 순찰사에게 진달(進達)한 공문서, 순찰사가 회시한 공문서 등이다. 이 문서들은 근대시기 행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9. 천군기(天君紀)

조선 중기 울진 출신 문인 황중윤(黃中允)이 지은 「천군기」의 필사본이다. 동명(東溟) 황중윤은 한강(寒岡) 정구(鄭述)와 아버지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에게 공부하여 가학을 계승하였다. 황중윤의 저술들은 『동명문집』으로 간행되기도 했으나 많은 필사본이 간행되지 않은 채 후손들에 의해 보관되어 왔다.

“승정계유중추(崇禎癸酉仲秋)에 황중윤서(黃中允書)”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633년(인조 11)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단행본 『삼황연의(三皇演義)』 내에 「천군기(天君紀)」, 「사대기(四代紀)」, 「옥황기(玉皇紀)」 세 편이 합철되어 있다. 또한, 후손이 행초서로 쓴 「수월당중건기(水月堂重建記)」가 들어있다. ‘전가대보(傳家大寶)’라는 유려한 글씨의 표제가 붙어 있어, 이 글을 통하여 가문에 묵시한 계시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837. 울진군, 2001, 『울진군지』상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천군기」는 단독으로 간행된 적이 없고 자손들에 의하여 전해져 왔다. 학계에서는 김동협 교수가 황중윤의 소설 작품 전체를 담아 1984년 『황동명소설집』으로 간행하여 문학과 언어연구회의 『국학자료』 제1집으로 소개하였으며,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 고소설 전집』 제61권에 영인본으로 소개하였다.

내용의 서두에서 천군(天君)을 의인화하여 “천군의 성은 주(朱)이고 이름은 명(明)이며 자(字)는 명지(明之)이며 격현 사람이다. 그의 선조는 천황씨(天皇氏)와 함께 살았으나 태고의 홍황박략(鴻荒朴略)한 시대에 아는 바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천군기」는 정태제(鄭泰齊)의 「천군연의(天君演義)」와 비교해 볼 때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황중윤이 정태제보다 35세 앞선 사람임을 감안할 때 「천군연의」는 「천군기」와 별본으로 보기 어렵다.

흔히 「천군기」를 따로 분리하여 독립된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사실은 『삼황연의』라는 제목 안에 존재하는 한편의 글로 보아야 할 것이다.

10. 평해 황씨 해월종택 소장 고서(平海黃氏 海月宗宅 所藏 古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소재 평해황씨 해월종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이다. 선조와 광해군 대에 걸쳐서 활동한 황여일(黃汝一)[1556~1622]과 황중윤(黃中允)[1577~?] 부자와 관련된 필사 원본 자료들로서 당시 울진 지역 사림의 학문 경향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금속활자로 인쇄된 내사본(內賜本) 『대학언해(大學諺解)』는 황여일이 1590년(선조 23)에 하사 받은 귀중본이다.

황여일이 관리 생활과 사행(使行)·종군(從軍) 과정에서 남긴 일기를 모아 엮은 『해월선조일기필적(海月先祖日記筆跡)』, 『해월헌계미일기(海月軒癸未日記)』, 『조천일기유고(朝天日記遺藁)』, 『은사일록(銀槎日錄)』, 『일기초(日記草)』 등은 문집에 다 게재되지 않은 중요한 문건들이다.

특히 『은사일록』 같은 경우는 『해월선생문집』에 수록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1590년(선조 23) 하사받은 내사본 『대학언해(大學諺解)』는 언해문 한자음을 기준의 『동국정운(東國正韻)』식 표기법으로 따르지 않고 당시의 음대로 표기하고 있다.

아들 황중윤이 남긴 필사본 『서정록(西征錄)』, 『남천록(南遷錄)』, 『달천몽유록(達川夢遊錄)』 등은 연구 가치가 아주 높은 자료로 분류되고 있다. 『서정록(西征錄)』은 주문사(奏聞使)에 임명되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쓴 기록이며, 『남천록(南遷錄)』은 해남 유배시의 일기이다.

이외에도 황여일의 저작을 모아 편집한 『잡고(雜藁)』와 황중윤의 글을 모은 『동명선조유묵(東溟先祖遺墨)』, 『월동난고(月洞亂稿)』, 이 가문의 적서(嫡庶) 분쟁의 일단을 보여주는

『소지첩(所志帖)』 역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사본『대학언해』는 언해 부분에서 한자의 음을『동국정운』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당시의 발음대로 음을 달아 놓아 국어사적인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일기 필사본이 다소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운 부분도 있거니와 대부분 초서로 된 것이어서 탈초의 어려움도 있는 자료들이다. 그러나 그 시대적 사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필사본이므로 귀중히 보관해야 할 자료이다.

11. 호월리 창동규례(創洞規例)

1831년(순조 31) 울진현에 있던 무월동의 마을 규약이다. 1704년(숙종 30) 송재(松齋) 장만년(張萬年)은 진사 장겸(張謙)의 11세손으로 태어났다. 예의와 행실이 바르고 근검 절약하여 선인들의 유업을 굳게 지키면서 자수성가하여 1740년경 울진읍 호월리 227번지[호월1길 45-8]에 현 기지(基地)를 택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술좌진향(戌座辰向)으로 16간 정자형(井字型) 와가(瓦家)를 짓고 앞뒤 산지와 논밭을 마련하여 오래 살 터전을 정하자 근친들도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마을 앞이 못으로 되어 있어서 달빛이 출렁이는 못에 비치면 이 달빛이 넘실넘실 춤을 추는 것 같아 마을 이름을 무월동(舞月洞)이라 하였다. 1831년(순조 31)에 「창동규례(創洞規例)」를 정하였으며 1850년(철종 1)에는 2차 동규례를 제정하였다.

「창동규례(創洞規例)」 서두문에는 “지금 마을 호수가 8호나 되었으니 이제 와서도 옛 그대로 지낼 것이 아니라 새 길을 쫓아 잘해 나가자. 이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의논하여 규약을 만들어 각자 성의껏 실행해서 태만함이 없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다.

1850년(철종 원년) 2차 동규례에는 “곡식과 돈을 모아 상부상조하려 했는데 병신·정유 양년에 흉년이 들어 동의 모든 일이 제대로 안되고 극히 해이해 져서 이웃 마을에 수치가 되니 이 어려운 때를 이겨 지난날의 일은 잊고 새로 잘해 보자. 항차 추입한 자가 몇 호가 되었으니 새 규례를 마련하여 꼭 지켜 잘해보자.”는 것이었다.

내용은 조례문(條例文)과 창동(創洞) 8호 좌목(8戶 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 동규례에는 7조의 규례로 되어 있는 조례문(條例文)을 정하였고 경술년 이후 추입자의 좌목도 기록되어 있다.

12. 황여일(黃汝一)의 『은사일록(銀槎日錄)』

황여일(黃汝一)[1556~1622]이 1598년 10월 21일부터 1599년 4월 25일까지 변무사절(辨誣使節)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 수도 북경에 다녀오는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이라

고 알려져 있다.

황여일은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회원(會元), 호는 해월헌(海月軒)·매월헌(梅月軒)이다. 경상도 평해 출신으로 황세충(黃世忠)의 증손이며 할아버지는 황연(黃璉), 아버지는 유학(幼學) 황응징(黃應澄)이다.

황여일은 1556년 평해 사동리(沙銅里)에서 태어났다. 1576년(선조 9)에 진사가 되고 1585년 개종계별시문과(改宗系別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88년 검열이 되었는데, 하번사관(下番史官)임에도 불구하고 출입하였다 하여 파직되었다. 1594년 형조정랑이 되고 곧 도원수 권율(權栗)의 종사관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뒤 도원수의 허락을 받고 일시 귀가하여 도원수와 함께 추고(推考)를 당하였다. 1598년 사서에 이어 장령이 되고, 이듬해 장악원정을 역임하였다. 1601년 예천군수가 되고 1606년 전적을 역임, 1611년(광해군 3) 길주목사, 1617년 동래진 병마첨절제사가 되었다. 평해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는 『조천록(朝天錄)』과 『해월집(海月集)』 14권 7책이 있다.

황여일 일기는 1776년에 간행된 『해월집(海月集)』 권10, 11, 12에 수록되어 있다. 일기는 주문(奏文), 일기-상, 일기-중, 일기-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문(記聞)이 있다. 이 일기는 1598년 10월 21일부터 1599년 4월 25일까지 기록하였고, 분량은 10행 20자 목판본 문집의 186면이다.

황여일이 1598년 중국 사신 정응태(丁應泰)가 주문(奏文)의 내용을 문제 삼자 이를 변무하기 위해서 명나라에 다녀오는 동안의 사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당시 사행 일행은 진주사(陳奏使)인 우의정 이항복과 부사(副使)인 공조 참판 이정구로 구성되었으며, 황여일은 변무사절(辨誣使節)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연경에 가게 되었다. 1598년 10월 21일 도성을 출발하여 요동을 거쳐 1599년 1월 23일 황성(皇城)에 들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1598년 10월 21일에서 이듬해 4월 25일까지 기록하여 돌아오는 기간에 대한 기록 역시 상세하다. 도성을 떠나 명나라 황제에게 진주문(陳奏文)을 올리고 변무(辨誣)하는 과정과 기행에서 만난 새로운 자연환경, 역사·문화 유적지의 전설, 풍속, 인심, 문화를 상세히 기술하고 감회를 덧붙였다. 지은 시 92제를 『해월집』 권9에 있다. 당시 중국과의 관계를 보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 앞부분에는 주문(奏文)이 있다.

임란 직후 한중관계 및 명나라의 정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명나라의 문물, 풍속 등에 대한 문화사적 정보 또한 다양하고 풍부하여 동아시아 문화사 연구의 중요 자료가 된다.

황여일의 일기가 수록된 문집 『해월집』은 5대손 황상하(黃尙夏)가 가장초고(家藏草稿)를 바탕으로 수집 편찬하여 1774년(영조 50)에 이상정(李象靖)의 교감(校勘)을 거친 뒤 그에게 서(序)를 받고 1776년에 이세택(李世澤)의 발(跋)을 받아, 저자가 제향되어 있는 평해의 명계서원(明溪書院)에서 당시 산장(山長)인 이형복(李亨福)의 도움을 받아 목판으로 14권

7책의 문집이 간행되었다.

13. 황중윤(黃中允)의 『남천록(南遷錄)』

황중윤(黃中允)[1577~1648]이 1623년 3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70일간 해남(海南)에 유배 가게 된 경위와 유배 기간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였다.

황중윤의 본관은 평해(平海)이고, 자는 도광(道光), 호는 동명(東溟)이다. 울진에 살았다. 해월헌(海月軒) 황여일(黃汝一)[1556~1622]의 아들이다. 황여일은 임진왜란 때 권율의 종사관이었고, 후일 공조참의를 지냈다. 황중윤은 안동 내앞마을 외가에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가 김성일의 형인 귀봉(龜峰) 김수일(金守一)이다. 황중윤은 정구(鄭逑)와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다. 1605년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612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은 좌부승지(左副承旨)에 올랐다.

문집으로는 『동명집』 8권이 있으며, 소설작품으로 「달천몽유록(達川夢遊錄)」, 「사대기(四代紀)」, 「옥황기(玉皇紀)」, 「천군기(天君紀)」 등의 한문소설이 전하고 있다. 1620년 중국 사신으로 발탁되어 『서정일록(西征日錄)』을 지었다.

평해황씨 해월종택에 소장되었던 자료이다. 전체 36면 분량 필사본이다. 1면은 17행 25~27자 정도로 구성되었다. 황중윤의 문집 『동명집(東溟集)』 권6에 '남천일록(南遷日錄)'이라는 제목으로도 실려져 있다. 필사본보다 간략하다. 1623년 3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기록했다.

일기는 1623년(인조 원년) 3월 13일에 김류(金壘)·이귀(李貴)·신경진(申景禎) 등 인조반정에 가담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 부친상으로 오대산(五臺山)에 성묘한 뒤 산 아래에서 묵었던 자신의 정황을 기술한 것으로 시작된다. 1623년(인조 원년) 3월 16일에는 인조반정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의금부도사가 이미 출발했다는 편지를 받지만 헛소문으로 일단락되고, 4월 22일에는 황중직(黃中直)으로부터 양사의 합계(合啓)와 정배소가 적힌 문서를 받았다. 황중윤이 오랑캐와의 주화(主和)를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해남(海南)에 안치(安置)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황중윤은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이 주화론을 폐기된 경위와 전말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1621년(광해군 13) 10월 후금군이 선천(宣川)의 임반관(林畔館)을 습격한 일로 비변사의 대신들이 회정당(熙政堂)에 모여 의논할 때 모두 광해군의 뜻을 죽이기 위한 기미책(羈縻策)을 주장하자 계사(啓辭)를 올려 '차관(差官)을 평계로 오랑캐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겉으로 유화책(宥和策)을 쓰면서도 안으로 수비를 튼튼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일을 빌미로 다음과 해에 박승종(朴承宗)이 자신을 주화론자로 몰아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당시 귀근했을 때 아버지 황여일이 “옛사람이 일을 먼저 하지 않는 것은 표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이니, 이 때문에 ‘화를 피하는 방법은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 너의 계사가 실로 과녁이 될 빌미가 되었으니 후일에 화가 미칠까 내가 너 대신 두렵다.”라고 말한 일을 회상하며 선친의 앞날을 예견한 통찰력에 탄식하였다. 그 이후의 일기 내용은 길을 떠나 유배지인 해남에 도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일기는 인조반정에 가담한 사람과 황중윤이 해남으로 유배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인조반정 직후 정계의 사정을 알려준다. 아울러 1621년 후금이 침입할 무렵의 상황도 함께 기록하고 있어 인조반정을 전후한 국내외 정세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14. 황중윤(黃中允)의 『서정록(西征錄)』

황중윤이 1620년(광해군 12) 주문사(奏聞使)로 명나라에 다녀올 때 쓴 일기이다.

황중윤의 자는 도광(道光), 호는 동명(東溟), 본관은 평해(平海)이다. 울진(蔚珍)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해월헌(海月軒) 황여일(黃汝一)이다. 정구와 장현광 문하에서 수업했다. 1612년(광해군 4) 문과에 갑과로 급제했고 이듬해 사간원 정언이 되었다. 이때 대비에게 효를 다할 것을 소청하였다가 광해군의 진노를 사서 파직 당했다. 1617년에 현납, 좌랑, 정랑이 되었으나 사양하고 1619년 재차관으로 요동에 다녀와서 직강, 지평이 되었다. 이듬해 동부승지가 되어 주문사(奏聞使)로 명나라에 가서 자문(咨文)을 올리고 우부승지·좌부승지가 되고 용천 부사(龍川府使)로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이 해 겨울에 청나라가 선천(宣川)에 침입 함에 공이 겉으로 유화책(宥和策)을 쓰면서도 안으로 수비를 튼튼히 할 것을 주장했으나 실시되지 못했다. 인조반정 후 공이 화의를 주장했다 하여 해남에 유배되었다가 정온의 소청으로 풀려 나왔다. 1637년(인조 15) 남한산성 항복의 소식을 듣고 비분을 금치 못하여 산협 속의 절간에 우거하며 여생을 마쳤다. 만년에는 현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방울리 월야동(月夜洞)에 수월당(水月堂)을 짓고 은거했다.

이 일기는 필사본이고 모두 180면이며 각 면은 10행 13~15자 정도로 구성되었다. 필사본이기에 구성이 고르지 않다. 1620년 3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기록되었다. 한편 한국국학진흥원에는 같은 일기 이본(異本)이 존재한다. 황중윤의 문집인 『동명문집(東溟文集)』 권 6 잡지 항목에 「서정일록(西征日錄)」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모두 123면이며 10행 20자로 구성되었다. 『동명문집(東溟文集)』은 목판본 8권 5책으로, 1905년 황중윤의 8대손 황수보(黃洙甫) 등이 집안에 대대로 수장되어 온 유고 등을 수습하고 편찬하였으며, 이중철(李中轍)의 발문을 받아 간행한 문집이다. 이 판본은 『한국역대문집총서』 등 많은 곳에 영인되어 실려 있다.

3월 26일 의주부윤 정준(鄭遵)의 장계에 의해서 4월 1일 주문사(奏聞使)로 차출되었으나 비변사에서 재촉하므로 4월 7일 떠나려 하였지만, 임금이 너무 급하다고 생각해서 4월 11일

로 연기되었다. 그러나 여행 경비와 물품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4월 15일 수연(壽筵)에 참석한 후 길을 떠나게 된다. 사건의 발단은 1619년 ‘심하(深河)전투’에서 강홍립(姜弘立)이 후금군(後金軍)에 투항했던 이후 요동의 각 아문이 조선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던 상황에서 고급사(告急使) 흥명원(洪命元)이 명에서 조선으로 보내려 했던 조사(詔使) 고출(高出)의 조선행을 저지하자, 명나라의 조선에 대한 의혹은 더 커져서 이에 조선은 황중윤을 주문사로 명에 보내 흥명원의 행동이 조선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명의 의심을 풀고 나아가 명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후 주문사의 역할을 마친 그는 8월 17일 귀국하였다.

이 일기는 사신으로서 임무 이외에 명나라의 문화와 문물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당시 사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황중윤은 광해군, 인조대의 정치적 격동기를 몸소 체험하였으며, 특히 외교술에 능했던 만큼 이 일기는 17세기 초·중반 조선의 정치사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15. 훈사절목(訓辭節目)

1677년 울진현령 오도일이 만든 향촌 교화를 위한 절목이다. 평해 소곡서당의 건립과 관련하여 서파(西坡) 오도일(吳道一)은 기존의 사설 서당이 누추하여 증설을 지원하였고 향촌을 교화하기 위한 조항과 서당에 관한 벌칙 조항 및 여러 제재 조항을 만들었다. 울진과 평해의 문풍 쇠잔과 인재의 고갈을 타개하려는 명분을 내세워 만들게 되었다.

「훈사절목」은 대체로 송준길(宋浚吉)의 「향학지규(鄉學之規)」를 모방하고 있어서 당시 중앙 정부가 추진한 향촌 교화 정책의 한 모습을 잘 보여주며 많은 벌칙 조항 및 제재 조항이 첨가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고 하겠다. 특히 훈장 선출은 공론에 의한다고 하여 향촌민들의 의사 반영을 약속하였지만 직분에 태만한 자는 중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사실상 수령의 통제 하에 서당을 두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시제(試製) 및 시강(試講)을 관에서 주도하도록 하였으며 성적 결과에 대한 상벌도 관에서 주관하도록 이관하였다. 이로써 시강의 과목을 관이 임의적으로 결정하여 향촌민 및 관동자(冠童者)들의 교육에 수령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정운